



# UPDATE

## 아메리칸 항공의 뉴욕 강화 전략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 여행객을 위하여 JFK 와 LaGuardia 두 공항에 23 편 of 비행기를 투입하여 7 개의 새로운 취항지를 추가하였으며, 업그레이드 기재와 공항 설비로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과 보스턴을 드나드는 아메리칸 항공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국내선 구간을 Jetblue 항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추가하고, Jetblue 항공 고객이 아메리칸 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하여 매끄럽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Jetblue 항공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별도로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의 소중한 고객들이 최근의 업그레이드와 예정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하여 뉴욕 시의 공식 마케팅 회사인 NYC & Company 와 파트너십을 통한 홍보 활동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NYC & Company 와의 중요한 공동목표인 뉴욕 시의 방문객 증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에서의 관리, 감독과 모든 영업활동, 그리고 원활한 공항운동을 감당할 새로운 책임자를 선임했습니다.

본 서비스 증진은 아메리칸 항공이 2009 년 발표한 기념비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뉴욕, 달라스, 시카고, 마이애미, 그리고 LA 시장에서의 아메리칸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원월드 항공 동맹의 파트너 항공사들 간의 네트워크와 아메리칸 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최상의 커넥션을 제공해줄 미국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국제 관문 공항입니다.

바로 지금이 뉴욕이 제공해주는 모든 흥미로움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확장합니다.

- 더 많은 국제선 연결과 동부 관문의 핵심이 되기 위해 Jetblue 항공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발표.

- NYC & Company 와의 파트너십을 포함, NYC 여행객들을 위한 영업활동의 확장.
- 연말까지 LaGuardia 와 JFK 공항에서 31 대의 비행기를 투입하여 13 개 신규 노선 추가 예정.
- 23 대의 비행기를 투입하여 7 개 목적지를 추가.
- 두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지 미국 국내선 전용 제트기인 American Eagle Bombardier 기종의 도입 및 서비스 강화
- 3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LaGuardia 와 JFK 공항 터미널 개선.
- 원월드 파트너 항공사들의 편리한 연결을 위하여 영국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JFK 공항에서 같은 8 번 터미널에 위치 시키는 것에 대한 분석.



아메리칸 항공 뉴욕 JFK 터미널





# American Airlines® UPDATE

## 아메리칸 항공이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 미국 관의 공식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다가오는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의 미국 관 공식 후원 항공사 (여객 부문) 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식 후원 사로서, 장관이 펼쳐질 본 행사에서 미국의 정신과 가치를 보여 줄 공개 행사에 참여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미국 기업들 군에 동참하였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5월 1일에 시작하며, 7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관람객들이 미국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메리칸 항공의 국제선 수석 부사장인 Craig Kreeger가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전 세계인을 한데 묶는 문화적 교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박람회와 미국 관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인과 중국인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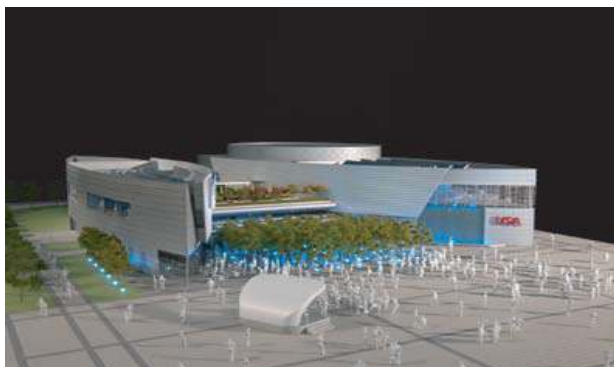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 박람회는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192 개국이 참여하고 50 개의 국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역사 상 가장 큰 행사입니다.

6 만 평방 피트가 넘는 미국 측 전시관은 세계 박람회에서 가장 큰 국가 전시관 중 하나이며, 박람회 측이 개장 전 사전 시장 조사한 결과에서 두 번째로 방문하고 싶은 전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전시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축하함과 동시에 미국의 문화와 가치, 혁신, 사업에 관련한 전시가 펼쳐집니다.

미국 전시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www.usapavilion2010.com](http://www.usapavilion2010.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펼쳐지는 세계 박람회는 상하이 대도시를 양분하는 후양푸 강의 독을 따라 인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전에 맞서다.”를 주제로 한 상하이 세계 박람회 미국 관의 전경

## 아이티에 희망을 전합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아메리카나 이글의 많은 직원들이 빨리 성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LA, 버뱅크에서는 신발을 모았습니다. 보스톤에서는 피자를 공수했습니다. 뉴욕 라파디아에서는 성금을 모아 진양지에 기부를 했습니다. 공식 콜 센터 중의 하나인 남부의 예약 사무소에서는 조지 클루니의 아이티를 위한 자선 기금 모금을 위한 방송을 도왔습니다.

이는 아메리칸 항공과 아메리칸 이글이 전역에서 펼친 수 많은 자선 기금 모금 행사 중의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아이티의 절망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전 세계의 직원들은 아이티 복구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도움을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 주요 기부 현황

- AAdvantage 회원 - 140 만 달러
- AA 연방 신용 조합 회원 - 약 3 만 달러
- American Giving 을 통한 직원 성금 - 8 만 5 천 달러 이상
- 직원 구조대 - 2 만 5 천 달러 이상
- 아메리칸 항공 JFK 직원 - 3 만 달러 이상
- SERO - 5 천 달러
- 아이티 성금 모금 방송
  - 350 명의 직원 참여
  - 만 5 천 통의 전화를 받음.
  - (2010년 2월자로 기부)

아메리칸 항공과 아메리칸 이글의 인도주의적 구조 현황

- 30 건의 구조 활동
- 40 만 파운드의 구조 장비 제공
- 450 명 이상 피난 (아이티 밖으로 피난을 보낸 사람들은 미 국무부에서 지정 함)



40 만 파운드 이상의 물자들이 아메리칸 항공과 아메리칸 이글로 공수되었습니다.